

중국의 한국고대사 인식과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전 호 태*

- I. 머리말
- II. 한국고대사 인식과 교과서 서술
- III.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의 시대별 동향
- IV. 역사인식, 문화사 서술, 고분벽화 연구와 응용
- V. 맺음말

I. 머리말

현대 중국의 역사인식과 서술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새삼스럽지 않다. 또 전근대 중국의 역사인식과 서술이 중화정통론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던다는 점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중화정통론의 현대적 변용으로 해석하는 시각과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역사연구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뜻 중심과 주변을 나누며 강자 중심의 정치사회적 논리 전개를 위한 전거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중화정통론과 여러 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정치적 통일체 결성의 불가피성을 설

*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특하는 데 필요한 이론인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내용과 지향점에서 확연히 다른 듯이 보인다. 그러나 두 관념, 혹은 논리체계의 내용 및 전개과정을 들여다보면 前근대와 근대 이후의 두 이론은 ‘한족 중심’이라는 사고체계와 중국 구성 민족간 역학관계에서 서로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수년 사이 한국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이른바 ‘동북공정’은 내용상 현대 중국의 주류 역사인식과 서술을 구체화하는 과정의 일부였음에도 국가간 외교적 현안의 하나로까지 떠올랐다.¹ 중국은 이를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까닭이다. 이것은 결국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으로 요약되는 중국의 역사인식이 이웃 나라의 그것과 충돌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과 논리를 담고 있음을 뜻한다.² 만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중화정통론 위에 성립하였거나 이와 관련이 깊은 이론이라면 동북공정의 논리와 영향력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한국학계는 두 논리체계의 상호관계와 논리전개과정, 그 연결고리로 지적되는 ‘한족 중심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해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동북공정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현대 중국 역사학계의 동향이 전근대 중국의 역사인식과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이것이 상호간 접촉이 빈번했던 한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 및 서술, 이에 바탕을 둔 역사교육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특히 한중 역사인식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른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방식 및 그로 말미암은 대중영향력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준비되었다. 필자는 이와 관련된 주제가 최근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검토되었음을 감안하여 논고 전개의 세부 내용부분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라는, 주제상 매우 특수하면서도 문화사적 측면에서는 보편성을 질게 담고 있는 분야에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한다. 실제 거대 담론이나 인식체계

¹ 동북공정은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줄임말로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이 2002년 2월 28일에 시작하여 5년 동안 진행한 중국 동북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종합 연구 작업을 말한다. 동북공정의 진행 과정과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리는 이희욱,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현황과 참여기관 실태」,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연구총서 12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pp. 81-150 참조. 이외 동북공정의 배경이 된 현대 중국의 정치사회적 동향과 역사인식의 흐름에 대해서는 윤휘탁, 『신중화주의: ‘중화민족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 (푸른 역사, 2007)이 좋은 참고가 된다.

² 중국에서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전개 과정에 대한 대표적인 전문연구서로는 王柯, 『民族與國家—中國多民族統一國家思想的系譜』(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왕가, 김정희 역, 『민족과 국가—중국 다민족통일국가사상의 계보』(고구려연구재단, 2001)이 있다. 국내에서의 관련논의는 여호규,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인식체계의 변화」, 『한국사연구』 126 (한국사연구회, 2004), pp. 280-284에 간결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의 실효성, 논리성은 평행선을 달리기 쉬운 논객 중심의 논쟁보다는 보편과 특수를 함께 논할 수 있는 사례연구의 축적을 통해 확인되거나 설득력을 갖추기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II. 한국고대사 인식과 교과서 서술

1840년 일어난 아편전쟁의 패배 이후, 청제국이 오히려 무기력증에 빠져드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자 중국의 지식인들은 宗藩關係를 기본 틀로 삼은 지배체제의 와해가 중국의 해체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³ 만주족 정권인 청이 적극적으로 도입한 종번체제는 중원으로 통칭되는 한족 중심의 중국내륙지대를 本部로 삼고, 몽골, 티베트, 신강, 대만 등 비한족 중심의 주변지역을 藩部로 하여 번부에는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二元지배체제이다. 이는 만주족 지배자들이 大一統이라는 개념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종번관계를 非한족지역이 중국의 일부로 남아 있게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체제로 보았기 때문이며, 실제 19세기 전반까지 이 정책은 그 효과성을 입증하면서 근간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번체제는 본부가 안정적인 체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구심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번부에 내재된 독립의지라는 원심활동이 표면화하면서 해체의 길을 걷기 쉽다. 중국의 지식인들이 보기에 1840년은 번부체제에서 구심력이 한계점을 노출하면서 원심활동이 시작될 수 있는 전환점에 해당했다. 청조를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던 양무운동의 실패 이후, 중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제국 해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은 더욱 높아졌고 실제 청조의 영역은 서구열강의 이권쟁탈 현장으로 바뀌어갔다.

종번이라는 기존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위해 ‘번부’를 대상으로 한 변강 연구가 구체화하고, 종번관계를 넘어서는 중국의 기본 강역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 현실과 관련이 깊다. 청조의 몰락과 중화민국의 성립, 일본제국주의의 중국대륙 진출 시도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 변강 연구는 더욱 활발해졌고, 중화의 강역에 대한 이론적 정리는 좀더 적극화하였다.⁴ 1840년경의 청조의 영역을 중국의 역사적 영토로 인식해야 하며

³ 박장배,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지역구조-지역 재구성 및 '서부대개발'과 관련하여-」,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고구려연구재단편, 2005), pp. 158-160.

이를 강역으로 삼은 다민족통일국가의 수립이 중국의 현재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정리되고 제시되었다. 물론 1910년대 중화민국 체제에서 이론적인 뼈대 상태로만 제기되기 시작한 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서 접두어로 상정된, 그러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념이자 용어는 중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영역 안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을 중심으로 한’이다.

본토, 혹은 중심영역을 전제로 한 변강의 상정과 그에 대한 연구는 의견상으로도 反본토론에 바탕을 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과 어긋나는 측면을 지닌다. 중원을 전제로 할 때 변경, 혹은 변강은 실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 민족간 평등과 공존이라는 관념을 바탕으로 볼 때에는 변강도, 중원도 존재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실타래를 더욱더 얽히게 하는 것은 민족 사이의 평등과 공존을 전제로 할지라도 중국대륙으로 일컬어지는 넓은 공간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이 정치경제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실이 중원과 변강을 상정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점이다. 현실세계에서 중원과 변강은 실재하고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한족’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한족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변강 연구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만나는 접점이라고 할 수 있고, 두 갈래 이론과 연구가 이어짐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순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존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가구성원을 주류와 비주류, 다수와 소수로 나뉘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한족 중심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자연 한족이 다수인 중원과 非한족이 주류인 변강, 곧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설정하고 이를 현실로 받아들인 채 이론적 전개를 시도하게 하므로 태생적으로 민족간, 지역간 긴장을 증폭시키고 모순을 확대시키기 쉽다. 중국 왕조시대의 역사인식을 담은 중화정통론 역시 이런 측면에서 두 갈래 이론 및 연구가 자아내는 것과 유사한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중화정통론도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바탕에 주류와 비주류를 상정하고 다수와 소수를 나누려는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중화정통론은 자의적이거나 일방적인 구분법에 의해 탄생시킨 두 집단 각각에 특정한 정치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여기에 정통과 非정통이라는 나뉠의 역사문화적 해석까지 덧입혀 이를 지속적으로 진화시키고 적용 대상을 확대시켜 왔다는 점에서 일정한 역사성을 지닌 개념이다.

사회구성원을 포함하여 파악이 가능한 세계를 이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재화하려

⁴ 馬大正·劉遜, 『20世紀的中國邊疆研究—門發展中的邊疆學科的演進歷程—』(黑龍江教育出版社, 1998); 馬大正 외, 조세현 역, 『중국의 국경·영토인식—20세기 중국의 변강사 연구』(고구려연구재단, 2004), pp. 93-115.

했다는 측면에서 중화정통론 역시 민족집단이나 지역간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제공한 이론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비록 만주족 정권인 청조에서 중화와 한족을 동일시하는 관념의 극복을 시도하고 중화에 대한 유연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중화문화정통론의 정립과정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중화정통론 자체는 역사적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까지 갖춘 고도로 진화된 역사인식론이라 할지라도 이원적 접근과 인식을 전제로 성립, 발전한 이론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정교함과 유연성을 아직 갖추지 못한 미완의 정치이론이자 역사인식론이라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이런 점에서 한족 중심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및 변강 연구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추진하는 현대판 중화정통론으로 나아갈 소지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신중국의 성립 이후 한국사와 관련한 역사인식과 서술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명시적으로 제시되면서 중국의 역사교재에서는 중국사의 전개를 한족 중심의 다민족결합과정으로 인식하고 서술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기 시작한다.⁵ 1959년 티베트에서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대규모 유혈사태가 역사교과서 서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주요 민족인 한족, 만주족, 몽고족, 위구르족, 티베트족의 역사를 중국사라는 큰 틀 안에서 정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1960년대 중국 역사학계에서 주요한 줄기였으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의 암흑기로 여겨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 중국 역사학계 역시 크게 위축되었음을 감안하면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역사인식과 서술에서 주의를 끌 만한 변화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작 주의를 기울일 부분은 개혁개방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1980년대 초반 이후의 역사인식과 서술이다. 1980년대부터 중국 여러 대학에서 비교적 널리 쓰인 세계사 교재들의 한국고대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그 대체적인 흐름을 짚어보면 몇 가지 주요한 변화와 그 배경이 된 역사인식의 전개과정을 읽어낼 수 있다.⁶

⁵ 이는 1950년대부터 강력하게 추진된 ‘내자 변강 일체화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박장배,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지역구조-지역 재구성 및 ‘서부대개발’과 관련하여-」,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p. 159 참조; 중국의 역사교재에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반영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구난희, 「중국 역사교육에서의 ‘민족문제’와 고구려·발해 서술 변화에 대한 고찰」,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 연구총서 18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6), pp. 217-259에 잘 정리되어 있다.

⁶ 이에 대한 정리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주목되는 논고로는 박영철,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사서술과 그 인식-전근대를 중심으로-」, 『중국교과서의 한국사 인식-한국사론 38』(국사편찬위원회 편, 2003), pp. 49-96; 유용태, 「중국대학 역사교재의 한국사 인식과 중화사관-고종제사를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

1983년 첫선을 보인 인민출판사본 『世界史』의 경우, 고조선, 부여, 삼국을 한국고대사의 범주로 설정하고 만주와 한반도 일대를 무대로 한 역사적 흐름을 개괄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한다.⁷ 문제가 되는 것은 위 책의 수정증보판에 해당하는 1997년판 『世界通史』에서 확인되는 뚜렷한 서술상의 변화내용이다. 1997년판 『世界通史』에서 한국고대사의 영역은 한반도 중남부로, 범위는 백제, 신라, 가야로 축소된다.⁸ 한국고대사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고조선의 역사와 국가적 활동범위, 북방사의 주요 백인 부여와 고구려의 역사가 한국사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다. 주의할 것은 1960년대에 이미 중국 역사교과서에서는 발해사를 말갈사로 인식하여 唐史의 일부로 서술하고 있던 까닭에 1970년대 이후의 한국고대사와 관련된 서술에서 발해사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⁹

위와 같이 한국고대사의 시간과 공간을 축소시키면서 추가된 서술 내용은 수정증보판 『世界通史』에 깔린 한국사 인식의 의도성을 좀더 뚜렷이 드러낸다. 바로 한반도 북부의 주민을 예맥족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주도하는 역사가 중국사의 한 자락을 이룬다는 내용의 서술이다.¹⁰ 예맥의 영역에 周 무왕이 봉한 제후국인 箕子朝鮮이 들어서고, 기자조선의 뒤를 이은 衛滿朝鮮을 멸하고 한이 군현을 설치하여 만주와 조선 중북부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식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결국 예맥이 주도한 부여사와 고구려사는 중국사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실제 이 책에서는 삼국시대를 잇는 통일신라의 존재는 상정되지 않는 대신 백제를 아우른 後期新羅가 당의 통일전쟁과정에서 멸망한 고구려 영토의 남부로 진출하였다는 언급이 뒤따른다.¹¹ 韓族이 주체인 신라의 북진으로 중국의 일부인 고구려의 영역 가운데 대동강 이남지역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한반도 중남부를 주된 거주지역으로 삼던 한인의 계속된 북

의」 연구총서 12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5), pp. 243-287; 김현숙, 「중국대학교계에 서술된 삼국 관련 내용 검토」, 『중국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문제』 기획연구 7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6), pp. 158-159 등이 있다.

7 崔連仲 主編, 『世界史』(人民出版社, 1983)은 1983년-1986년에 걸쳐 초판이 간행되었고 1996년까지 12쇄 101,000책이 인쇄, 보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유용태, 「중국대학 역사교과의 한국사 인식과 중화시관-고중세사를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연구총서 12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p. 273.

8 精裝本 전6권의 崔連仲 主編, 『世界通史』(人民出版社, 1997)의 古代卷은 12개 대학 교수 16명이, 中世卷은 16개 대학 21명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後記에 따르면 이 책 고대권의 한국과 일본 부분은 徐德源이 집필하였고, 崔連仲이 검토, 수정하였다.

9 구난희, 「중국 역사교육에서의 '민족문제'와 고구려·발해 서술 변화에 대한 고찰」,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 연구총서 18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6), p. 230-231.

10 崔連仲 主編, 『世界通史』古代卷 (人民出版社, 1997), pp. 437-438.

11 劉明翰 主編, 『世界通史』中世紀卷 (人民出版社, 1997), p. 300.

진의 결과 두만강, 압록강을 경계로 현재의 한·중 국경이 그어지게 되었다는 시각이 전제된 서술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국고대사 인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시각과 서술이 아닐 수 없다.

위의 『세계통사』에 버금가는 책으로 평가받는 고등교육출판사본 『世界史』(1994년) 역시 1980년대까지 유지되던 한국고대사 인식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학교재 가운데 하나이다.¹² 1994년판 『세계사』에서는 한국사를 통일신라의 출발(676)부터 서술하여 삼국시대를 포함한 그 이전의 역사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고 있다.¹³ 일본의 대화개신(646)에 대한 서술과 조응시키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책의 문화사 부분에서 백제, 신라와 함께 고구려에 대한 언급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고대사의 전개과정에 대한 의도적인 축소나 외국의 혐의를 지우기 어려운 서술방식이라고 하겠다.

1972년 출판된 인민출판사본 『世界通史』(전4권)에서 기자조선의 실체를 부정하고, 위만조선 멸망 후 이루어진 한의 군현설치를 조선에 대한 침입의 결과로, 고구려가 남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낙랑을 멸망시킨 것을 고조선 고토의 수복으로 규정하는 식의 서술을 하였던 것과는 격세지감이 있다.¹⁴ 1977년 북경대학출판사에서 간행된 『簡明世界史』(전4권)에서도 언급되지 않던¹⁵ 기자조선이 1997년판 인민출판사본 『世界通史』에서는 별다른 논리적 근거나 연구사적 성과도 제시하지 않은 채 역사적 실체로 서술하는 데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중국 역사학계에는 한국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서술을 강제하는 힘이 외부로부터 작용하고 일부에서는 이런 흐름이 받아들여지는 듯이 보인다.¹⁶

1993년 출간된 『中國東北通史』가 이런 흐름의 메개가 되고 또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지적도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¹⁷ 『中國東北通史』가 1987년부터 5년간 계속된 이 분야에서의 집체공작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위의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닐 수밖에

¹² 吳于廑·齊世榮 主編, 『世界通史(全6卷)』(高等教育出版社, 1994)는 1994년 초판 발간 이래 2004년까지 13쇄가 나왔다.

¹³ 吳于廑·齊世榮 主編, 『世界通史』 古代史 下卷 (高等教育出版社, 1994), p. 34.

¹⁴ 周一郎·吳于廑 主編, 『世界通史』 上古部分 (人民出版社, 1972), p. 398.

¹⁵ 北京大學歷史系簡明世界史編史組, 『簡明世界史』(北京大學出版社, 1977), p. 151.

¹⁶ 고조선과 고구려를 중국 戰國時代 燕에 속했으며, 漢 武帝에 의한 4郡 설치를 秦末, 漢初 燕·齊·趙民의 조선 이주의 결과로 서술한 중국고대사 교재[張傳璽 主編, 『簡明中國古代史』(北京大學出版社, 2004), p. 188]의 출간도 이런 추측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의 하나일 수 있다.

¹⁷ 유용태, 「중국대학 역사교과의 한국사 인식과 중화사관-고중세사를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연구총서 12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p. 273.

없다.¹⁸ 사회주의체제에서 역사인식과 서술이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치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심하다는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이른바 1992년부터 전면화하는 한족 중심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중국의 지역사, 변강사에 적용되고 그 결과가 다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바탕에 깔고 서술된 역사교재의 내용에 반영된 구체적 사례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러면 고등교육교재인 대학 세계사 교재의 한국고대사 서술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되는 『中國東北通史』의 고조선-고구려 인식이 전문적인 연구의 영역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고구려 고분벽화라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주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식과 서술상의 변화를 가져왔을까? 이 분야 연구의 시대별 흐름을 짚어보면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III.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의 시대별 동향

중국인 학자가 고구려 고분벽화를 연구주제로 한 글을 쓰거나 저서를 출간한 사례를 1945년 이전의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제의 패망으로 압록강 이북의 옛 만주국 영역이 중국 영토의 일부로 인식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출범으로 중국의 주권이 직접 미치는 땅이 된 뒤에야 벽화고분에 대한 언급이 간간히 이루어지는 정도였다. 1961년까지 고구려 고분벽화에 관한 글은 9편 가량 발표되었을 뿐이다.¹⁹ 이는 이 분야가 중국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비슷한 흐름은 1980년까지 계속되어 이전 시기보다 적은 7편 정도의 글이 발표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분야에 새롭게 발을 디딘 연구자도 단체 3곳, 개인 5명에 불과하다. 만주 일원이 중국의 영토로 귀속된 뒤 이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간간히 진행되었고 그 와중에 고구려 유적의 조사, 정리도 이루어진 결과가 몇 편의 글로 남은 것이다. 이를 중국의 정치사적 변동과 연결시켜보면 중국이 문화대

¹⁸ 薛虹·李壽田主編, 『中國東北通史』(吉林文史出版社, 1993)은 14명의 학자가 각 장을 분담하여 집필하였다. 책의 대체적인 구성과 내용으로 보아 『中國東北通史』는 金毓黻, 『東北通史』(重慶: 五十年代出版社, 1943); 김옥불, 동북이역사재단 역, 『중국동북통사』 상·하 (동북이역사재단 번역총서 9·10, 2007)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옥불은 20세기 전반 동북변강사 연구를 주도하고 이 방면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¹⁹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 311. 이하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사에 대한 정리는 같은 책, pp. 303-360 참조

혁명노선에서 개혁개방노선으로 전환하는 1976년까지 중국학계에서 고구려사 인식과 이해의 실질적 증거자료인 문화유적은 주요 관심사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1981년 이후의 상황이다.

필자의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사 시기구분상 제4기에 해당하는 1981년부터 2000년 사이에 중국의 이 분야 연구성과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인다. 저서 1권의 출간에 더하여 56편의 발굴보고와 연구논문이 쏟아지고, 이 분야에 새로이 참가한 연구자도 단체 5곳, 개인이 25인에 이른다. 19편의 발굴보고를 포함하여 26편에 이르는 고고학 분야 논저들은 개혁개방시기의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고구려 벽화고분이라는 특정한 유적의 조사보고가 적극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정치·사회사 및 종교·사상사 분야의 연구논문도 15편 가량 발표되는데, 중국학계에서 이 분야를 언급할 수 있는 연구인력이 충분치 않음을 감안하면 이 역시 특정분야에 대한 관심의 집중을 반영하는 측면을 강하게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제4기 중국의 연구동향 가운데 4기 말에 해당하는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의 연구성과 산출 상황을 따로 떼어 정리하면 특정시기 특정분야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좀더 뚜렷이 읽어낼 수 있어 주목된다.²⁰ 제4기 연구 성과물의 1/3이 이 기간에 발표되고 있으며, 논고발표에 참여한 연구자도 무려 15인,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학자만 5인에 이른다. 3기 말 4기 초의 기간에 방기동, 이전복만 발굴보고를 곁한 논고를 3편 이상 발표했던 것과는 구분되는 흐름이라고 하겠다. 성과물을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역사학과 관련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고고학, 미술사에 관한 글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1997년판 『세계통사』에 이른바 ‘동북공정’의 바탕이 되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한 서술이 전면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통계상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 연구논저가 1997년 이후 집중 발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분벽화 연구가 고구려 역사문화 연구의 일환임을 고려할 때, 이 분야의 관련 연구가 동력을 받고 준비된 시기, 혹은 그 계기는 중국 내에서 고구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1997년 이전의 학문적 활동이나 특정 사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1993년 9월 길림성 집안시에서 개최된 제1회 고구려국제학술회의이다.

고구려의 국내성 천도 199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 학술회의에는 남북한과 중국 학자

²⁰ 전호태, 「외국학계의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동향(1997-2003)」, 『역사와 현실』 52(한국역사연구회, 2004), pp. 297-332.

들이 참여하여 고구려사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교류하였는데, 북한의 박시형이 중국학자들의 고구려사 중국귀속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중국의 손진기가 중국측 입론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고구려사귀속문제’가 동아시아 역사학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²¹ 1993년 출간된 『中國東北通史』가 바탕에 깔고 있는 시각, 그 이전 1987년부터 5년에 걸쳐 이루어진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한 동북민족사의 정리과정이 이를 예의 주시하던 북한학계의 문제제기로 그 실체의 일부를 국제 역사학계에 드러내게 된 것이다.

1993년의 학술토론을 계기로 중국학계는 고구려사 중국귀속론을 중앙학계 차원의 연구 과제로 여겨 중앙과 지방, 곧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3성지역 역사학계가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몰두하게 되었다. 길림성 통회사법학원 고구려연구소와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려연구중심이 공동개최한 제1회 ‘全國高句麗學術研討會’(1998. 6. 26-28, 이하 ‘고구려연토회’)는 비록 중국 동북지역 연구기관이 주최하였지만 북경의 중국사회과학원이 적극 후원한 ‘전국’ 차원의 학술대회라는 점에서 이전의 유사한 학술대회와는 대비될 정도로 그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다.²² 이 1회 ‘고구려연토회’의 참여자가 동북3성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일정한 정도 全國性을 보인다는 사실, 고고학이나 역사학과 같은 기존의 관련분야 연구자에 머무르지 않고 화가나 작가 등등 광범위한 영역의 종사자, 전문가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1회 ‘고구려연토회’는 고구려사 이해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학술정보, 역사인식 공유시스템이 마련되고 가동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미 1996년부터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 소속 연구자들과 동북3성 역사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고구려사 연구가 시작되었음은 관련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에 의한 공동연구의 성과 일부가 1998년의 학술대회에 발표되었으며 2001년 발간된 『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은 이런 일련의 작업을 종합 정리한 결과물이다.²³ 고구려 고

²¹ 김현숙, 「고구려의 민족, 정치 분야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동향」,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분석』(고구려연구재단 단편, 2004), pp. 72-73.

²² 제 회 ‘고구려연토회’에는 22개 기관에서 51명의 학자가 참가하여 3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1999년 6월 『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이라는 제목의 책자로 출간되었다. ‘동북공정’의 출범을 전후하여 중국에서 개최된 고구려 관련 학술회의와 발표내용, 중국 중심 고구려사 인식 논리개발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호규,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인식체계의 변화」, 『한국사연구』 126(한국사연구회, 2004), pp. 277-315 참조.

²³ 馬大正外, 『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黑龍江教育人民出版社, 2001). 집필작업과 출간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는 여호규,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인식체계의 변화」, 『한국사연구』 126(한국사연구회, 2004), pp. 289-290 참조.

분벽화와 관련된 연구논저들이 1997년부터 대거 발표되는 것도 고구려사 중국귀속론을 뒷받침하려는 연구가 본격화하는 이런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한족중심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바탕으로 한 고구려사 중국귀속론이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에서는 어떤 논리와 방법론을 담아 제시되고 있을까. 이하 1980년대 이후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의 흐름을 짚어보게 하는 몇몇 논저의 논지 전개방식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른바 동북공정식 고구려문화론의 실체에 접근해보기로 하자.²⁴

1980년대 발간된 중국학자들의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 논고에도 중원 중심주의, 중원문화 영향론은 거의 빠짐없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런 논고에서 드러나는 중원 중심주의는 중국 주변지역 역사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작 눈길을 끄는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 관련 논고에서 제시되는 중원문화 기원론이다.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에 주력해 온 耿鐵華의 1993년 논고에서는 이런 시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²⁵ 집안의 오희분 4호묘, 오희분 5호묘 널방 천장고임 벽화의 해석을 시도하면서 고구려가 중화민족의 시조신인 복희, 여와를 믿고 제사지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중원문화의 요소를 찾고, 이를 고구려인의 일상적인 종교신앙 및 제사활동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이러한 방식의 접근태도는 경철화의 이후 논저에서 더욱 확대 강화되어 제시되고,²⁶ 같은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학자들에게 고구려 고분벽화의 구성요소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론처럼 받아들여지게 된다. 尹國有는 경철화식의 일정 정도 포괄적인 접근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분벽화의 개별 제재를 중국 漢代의 신화전설이나 종교문화 관념과 대비시키는 방식을 택하여 고구려문화에 끼친 중국문화의 영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²⁷ 趙東艷이나 李若遷 등은 고분벽화에 대한

24 필자가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2003년까지의 중국측 연구동향까지 일괄 정리한 뒤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 부록: 고구려고분벽화연구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p. 302-360] ‘동북공정’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내의 연구자들에 의해 관련 논고가 잇달아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다. 김일권, 「중국학계의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동향 분석」,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분석』(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pp. 259-290; 김진순, 「중국학계의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분석」, 『중국의 한국고대 문화연구분석』(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pp. 157-188; 박아림,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의 정체성 연구」, 『高句麗研究』29(고구려연구회, 2007), pp. 283-303.

25 耿鐵華, 「集安五區墳五號墓漢井壁畫新解」, 『北方文物』(1993년 3기).

26 耿鐵華, 「高句麗壁畫四神圖及其文化淵源」, 『黑土之的古代文明』(遠方出版社, 2000).

27 尹國有, 「高句麗壁畫中的鳥圖騰」, 『吉林藝術學院學報』(1996년 3·4기), pp. 38-42; 尹國有, 「高句麗四神墓壁畫“怪異獸面”新解」, 『通化師範學報』(1998년 1기), pp. 68-71; 尹國有, 楊春吉·耿鐵華編, 「高句麗壁畫中的湯谷扶桑圖」, 『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吉林文史出版社, 1997); 尹國有, 「集安高句麗墓室壁畫表現形式研究」, 『全國首

이해보다는 고구려문화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데에 좀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들의 논고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문화를 중원문화, 漢문화의 아류로 인식, 서술하려는 의도를 바탕에 깔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²⁸

고구려 고유의 문화요소를 인정하던 李殿福이 2001년 고구려인을 중국 고대민족의 하나로 규정한 위에 고분벽화 속의 생활습속을 정리하는 논고를 낸 데에서 잘 드러나듯이²⁹ 제1회 고구려연토회의 결과물들이 출간되는 2000년대에 이르면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는 한층 강화된 고구려사 중국귀속론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2002년 2월 5년 기한으로 시작된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동북공정은 중국사회과학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일련의 변강사 연구작업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지만 고구려사와 관련한 세부연구주제는 제1회 ‘고구려연토회’의 성과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2년 7월 개최된 제2회 ‘고구려연토회’에서 발표된 연구주제들과 그 바탕을 이루는 논리와 방법론 역시 향후 고구려 연구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³⁰

동북공정이 출범된 2002년 이후 중국학계의 연구동향에서 특히 주의가 가는 것은 고구려라는 역사적 실체의 축소, 혹은 정체성 재인식론과 그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눈길이 가는 글이 2004년 발표된 孫進己·孫泓의 논고로 중국의 고구려 연구가 어떤 정치논리와 지향점 위에 이루어지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³¹

고구려인이 중국 고대민족의 한 갈래라는 주장을 논리화시킨 당사자이기도 한 손진기는³² 위의 논고에서 순수한 고구려 벽화고분은 국내성시대의 10여 기뿐이며, 평양천도 이후

馬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吉林省社會科學院高句麗研究中心·通化師範學院高句麗研究所, 1999. 6), 위의 일련의 연구 결과는尹國有, 『高句麗壁畫研究』(吉林大學出版社, 2003)으로 출간되었다.

²⁸ 趙東艷, 「高句麗文化中的漢文化因素」, 『遼寧大學學報』(1996年 3期), pp. 61-63; 李若遷, 「高句麗文化與中原文化淵源關係略述」, 『通化師範學院學報』(1996年 1期), pp. 66-69.

²⁹ 李殿福, 「高句麗古墓壁畫反映高句麗社會生活習俗的研究」, 『北方文物』(2001年 3期), pp. 22-29. 이 글의 원본에 해당하는 李殿福, 「通過高句麗古墓壁畫看高句麗社會生活習俗的研究」, 『高句麗研究』4(고구려연구회, 1997), pp. 443-490에서는 고구려인을 ‘고구려민족’으로만 일컫고 중국의 고대 민족으로 규정하는 별다른 언급을 덧붙이지 않았다.

³⁰ 제1회 ‘고구려연토회’는 동북공정의 공식 선포 이후의 첫 번째 학술회로 중국사회과학원변강사지연구중심과 길림성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개최하여 2002년 7월 9일-13일 사이 길림성 장춘과 통화에서 열렸다. 이 학술회의에는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1단계 의제로 동북변강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고, 2단계 의제로 고구려사 문제를 검토하였다. 공식명칭인 第二屆東北邊疆歷史與現狀暨高句麗學術討論會에서도 드러나듯이 이전까지 관련 학술토론의 장을 분리시켰던 동북변강 연구와 고구려 연구가 사실상 별기분의 관계에 있음을 내외에 공식화시킨 학술회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³¹ 孫進己·孫泓, 「公元3-7世紀集安與平壤地區壁畫墓的族屬與分期」, 『北方文物』(2004年 2期), pp. 36-43.

에는 국호가 고려로 개칭되므로 개칭 이후 조영된 벽화고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고구려의 유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5세기 초 이전의 평양·안악지역 벽화고분 역시 고구려의 벽화고분이 아니며 무덤의 주인공들은 한족이라는 것이다. 결국 손진기 등은 고구려를 중국 고대민족의 한 갈래가 세운 지방정권으로 설명하면서도 고구려의 문화적 산물은 최소화시켜 중국 역사를 한족이 주도하고 이끌어온 역사로 서술하려는 의도를 논고에 그대로 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중국의 지식인들이 중국을 순수한 의미의 ‘다민족’ 국가, 여러 민족과 지역간의 평등과 공존이 전제된 시공간적, 생태적 ‘합중국’형 국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논리전개방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중국학자들의 논저 가운데에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는 손진기식의 논고와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도 논리의 지향점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는 듯한 글도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張碧波의 논고이다. 장벽파는 2005년의 논고를 통해 고구려 고분벽화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중국문화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³³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중국적 풍격과 기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고분벽화 속에서 고구려문화의 개성을 읽어낼 여지를 아예 막아버린 셈이다. 손진기 등과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 고대문화에서 한족 이외 종족단위 문화활동 및 그 산물의 출현 가능성을 일축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2000년대에 이르러 중국학계에서 비교적 자주 언급되고 서서히 통설화의 길을 밟아가고 있는 중국문화의 다문화기원론도 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의 상층계급을 토착화된 한족으로 설명한 姜維東은 고구려민족의 전면적인 漢化를 주장한 于波, ‘동북지역의 한문화권, 중원 한문화 다원일체 속의 고구려’라는 개념을 제시한 陳鵬·陳琳보다 극단적인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연구자들 가운데 하나이다.³⁴

³² 孫進己, 『東北民族源流』(黑龍江人民出版社, 1987); 손진기, 임동석 역, 『동북민족원류』(동문선, 1992)은 중화민족 형성과정의 일부로서 동북민족의 각 갈래가 역사적으로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정리한 저서로 이후 진행되는 중국에서의 동북민족 관계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³³ 張碧波, 「高句麗壁畫四神圖像與中國的天文學, 神話學」, 『北方文物』(2005年 1期), pp. 60-67.

³⁴ 姜維東, 「高句麗文化淵源概說」, 『社會科學戰線』(2004年 6期), pp. 136-139; 于波, 「漢文化對高句麗文化的影響」, 『東北史誌』(2006年 2期); 陳鵬·陳琳, 「高句麗文化歸屬於中國東北“漢文化圈”」, 『東北史誌』(2005年 5期). 姜維東 등의 글에 깔린 인식은 앞에서 언급한 趙東艷, 李若遷과 대동소이한 논리전개를 보인 張碧波, 張博泉, 閻海 등의 논고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았을 것이다. [張碧波, 「高句麗文化淵源考」, 『北方文物』(1998年 1期), pp. 56-66; 張博泉, 「高句麗與中原文明」, 『社會科學戰線』(1998年 5期), pp. 186-191; 閻海, 「試論高句麗與殷商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중국문화의 속성을 읽어 내거나, 문화 산물의 주체로 한화된 고구려 상층계급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는 고구려와 고려를 분리 인식함으로써 손진기식 논고의 내용이 한화된 고려와 非한화 상태의 고구려로 대비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자조선 이래 중국의 동북지역이 한화의 길을 걷고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결국 고구려 고분벽화 이해방식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듯한 이들 논고들 사이를 잇는 고리 역시 '한족문화'인 것이다. 물론 이런 논리적 연결고리는 한족 중심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라는 신중국식 역사인식론을 바탕으로 삼아 주조된 것이지만 세부적인 디자인은 2002년 시작된 변강사지연구중심의 동북공정과 1회 및 2회 '고구려연토회'의 성과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⁵

IV. 역사인식, 문화사 서술, 고분벽화 연구와 응용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근간으로 한 신중국의 역사인식은 중국의 마지막 왕조 청의 2원적 지배체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화민국 시기와 항일독립운동, 國共內戰 기간을 거치면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민족별, 지역별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중국대륙을 하나의 정치체제 아래 묶어두기에 가장 유효한 논리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다듬는 데 힘을 모으게 된다.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변강 연구 역시 기본 목적과 기능은 신중국을 다민족통일국가로 규정하고 '하나의 중국'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논리 개발이었다.³⁶ 1986년부터의 개혁, 개방은 이들이 갖고 다듬은 내부통일논리가 외부세계의 인식과 논리체계에 어느 정도의 변

의文化淵源, 『遼寧師範大學學報』(2001年 11期), pp. 99-101]

³⁵ 2003년 8월 23일-24일 김립성 연길시에서 열린 '高句麗・渤海問題學術研討會', 2003년 10월 9일-13일 김립성 집안시에서 개최된 고구려 국내천도 2000주년 기념 '第三屆全國高句麗學術研討會' 등의 학술회의를 통한 중국 고구려·발해사 인식 심화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국내외 관련 학계의 검토와 분석은 아직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동북공정의 2004년 및 2005년 공모과제에 고조선사와 발해사 개정리와 관련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김현숙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김현숙, 「고구려의 민족, 정치 분야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동향,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분석』(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p. 75]

³⁶ 박장배,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지역구조-지역 재구성 및 '서부대개발'과 관련하여-」,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pp. 158-160.

역성을 지니고 있으며, 바깥으로부터의 도전에 맞서고 이를 넘어서는 설득력과 전파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긴장된’ 기회였다.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한 『中國東北通史』의 출간은 중국이 죽의 장막을 걷는 개혁, 개방정책 채택과 동시에 중국 변강의 소수민족 및 개별 자치구, 자치현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구심력을 유지하기 위한 역사문화 연구를 시작했음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사례이다. 『中國東北通史』를 관류하는 핵심적 사고가 중국 역사문화의 전개과정은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화화민족이라는 역사문화복합체에 합류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늘 형성 과정에 있는 한족의 출현과 활동이라는 시각을 줄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한족중심이라는 전제를 달 수밖에 없는 것도 중국 지도부가 이처럼 입증되지 않은 가상의 역사를 상정한 뒤 다시 이를 실제의 역사로 증명하려는 의도를 내외에 관철시키려 하는 까닭이다. ‘한족’ 자체도 인류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문화적 실체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고려하면 정치 우위의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지도부가 현실적 필요에 따라 제시한 논리체계를 과거의 시공간에까지 확장시키려 하는 중국학계의 연구자적 입지가 얼마나 좁으며 그 논리적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중국학계는 한족을 중국 역사문화의 주도 종족으로 설명하면서 그 종족적 기원을 중국 신화전설시대의 주인공인 황제, 염제에 두고 이를 입증하는 논리개발에 주력함으로써 한족 중심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시공간적 입지를 무한대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 현재의 필요에 따라 개발된 논리체계의 역사적 소급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신화전설시대에까지 적용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³⁷ 한국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의 단군신화시대를 전면 부정하고, 기자의 분봉으로 조선이라는 체후국이 등장한 것으로 서술하는 것도 고조선을 炎黃時代에서 夏商周로 이어지는 확장된 중국사의 체계 안에서 인식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⁸

³⁷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신화전설과 역사시대를 구분하지 않는 서술방식을 채택하여 역사교육을 통한 객관적 역사인식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일권, 「중국 역사교과서의 신화·공정론과 민족융합론을 통한 역사통합이론 고찰」,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문제』(동북아역사재단 편, 2006) 참조.

³⁸ 하·상·주의 연대표를 확정하기 위한 ‘夏商周斷代工程’, 중국문명의 기원을 찾기 위한 ‘中國古代文明探源工程’은 중국 상고사의 뿌리를 신화시대와 직결시키고 삼황오제의 시대를 역사화하면서 중국과 이웃한 나라와 민족들의 기원신화를 뿌리째 흔들거나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공정에 대한 간결한 소개는 김현숙, 「고구려 族源問題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 『중국의 한국고대사 연구분석』(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pp. 154-155 및 윤휘탁, 「중국 중·고고 역사교과서에 반영된 중화외식」, 『중국 역사 교과서의 민족·국가·영토문제』(동북아 역사재단 편, 2006), p. 43 참조.

염황을 시조로 하는 다양한 갈래의 종족이 華夏를 이루고, 화하가 漢이 되어 오늘에 이르면서 염황의 다른 갈래이던 주변의 많은 소수민족을 漢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중국학자들의 사고는 동아시아 역사문화의 다양한 산물들 역시 漢文化의 범주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확장된다. 이런 시각으로 東아시아사를 바라보는 중국학자들의 논저에서 고조선-고구려-발해로 이어지는 한국 고대 북방사의 흐름과 그 산물들도 한문화의 일부라는 인식과 서술이 확인되는 것도 어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런 논리 전개가 주류를 이루는 상태에서는 현재의 중국 영토를 역사주권의 경계로 여겨 고구려사가 중국사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한국사의 한 줄기이기도 하다는 ‘一史兩用論에 입각한 역사인식과 서술도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³⁹⁾

2002년 2월 시작된 동북공정은 중국 변경사 연구에서 동북지역 역사문화 탐구가 지니는 정치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내외에 다시 주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⁴⁰⁾ 동북공정에서 제시된 주요 연구과제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고구려사와 관련된 것들이었고, 이런 주제들이 지닌 역사문화 연구 이상의 가치와 효용을 드러낸 내용들이었다. 결국 잘 알려진 것처럼 고구려사를 사실상의 중심에 둔 동북지역 역사문화 관련 연구의 최종 목표는 서북의 新疆이나 티베트처럼 중국사 전개과정상 동북도 신강에 가깝다는 현실을 넘어서 변경의 조선족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북한 공산체제의 불안정으로 말미암은 위기상황에 대비한 보험 차원의 투자효과를 거두는 데 있다.⁴¹⁾ 한국사에서 고대 북방사 부분이 전면 부정되는 데에서 오는 역사인식체계의 훼손과 혼란은 중국학자들에게는 관심 밖의 사항에 불과했던 것이다.

동북공정 및 그 전후 2차례에 걸쳐 열린 ‘고구려연토회’의 성과에 힘입어 중국학계는 한화된 고구려인에 의해 제작되어 한문화의 숙성을 그대로 담은 고분벽화, 고대부터 한문화권의 일부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드러낸 동북지역 한문화권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한 고구려라는 새로운 역사상과 문화상을 그려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중국의 신화체계와 천문지식, 종교신앙, 제사의식이 잘 형상화되어 있고 한화된 고구려의 지배층은 한문화를 동북아의 다른 지역에 전파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는 것이다. 한반도 중남부의 백제, 신라, 가야와

³⁹⁾ 여호규, 「한중 역사인식의 접점 - 고구려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현실』 55 (한국역사연구회, 2005), pp. 17-24.

⁴⁰⁾ 중국 중앙의 관심, 국무원의 지도와 지지 아래 국가의 위탁을 받아 사회과학원과 동북3성이 합작형태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全哲洙의 언급에서 동북공정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제임이 잘 드러난다. [全哲洙, 馬大正 主編, 『開展東北邊疆問題研究的幾個問題』, 『中國東北邊疆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pp. 4-5.

⁴¹⁾ 전호태, 「고구려, 역사, 국제질서」, 『철학과현실』 통권60호(철학과현실사, 2004. 3).

일본열도의 세력들은 고구려로부터 전해 받은 한문화의 영향으로 문화적 개화기를 맞고 정치사회체제의 정비를 기할 수 있었다는 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학계의 이러한 논리와 주장이 과연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 바깥의 연구자들에게 역사적 실재와 어느 정도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가이다. 주요한 몇 가지 주장과 전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고구려 지배층의 漢化論을 검토해보자.⁴² 고구려의 건국과정은 주몽신화에 비교적 상세히 전하며 유리왕, 대무신왕 시기의 기록을 통해서도 건국 초기의 분위기를 잘 읽을 수 있다. 고조선의 멸망 뒤, 漢군현을 통한 식민 활동의 영향으로 비류수, 압록수 유역에도 漢人이 살며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음은 유리왕의 두 부인 화희와 치희의 갈등 사건을 통해서도 그 일면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정국을 좌우하거나 지배체제의 변화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 환인, 집안 일대에서 발굴되는 고구려 초기 유적과 유물에서도 한문화의 영향을 짙게 담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⁴³ 역사기록과 발굴유적 어디에서도 漢化論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지지 않는다.

동북아를 한문화권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시각 역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헌적, 고고학적 증거물이 충분히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립하기 어렵다.⁴⁴ 고조선의 멸망을 전후하여 요하 동쪽 세계의 일부 지역에 교역을 통해 한의 문물이 다량으로 흘러들었을 개연성은 높으며, 명도전, 오수전 등등 중국계 화폐와 유물들이 고조선 및 한군현 시기 유적에서 발견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증거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동강 유역의 낙랑군 치소 및 그 주변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압록강 중류 일원에서 발견되는 초기 고구려 유적에서 수습되는 유물들은 한문화와 거리가 먼 것이 오히려 많다. 대동강 유역 출토 유물들에서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非한계 유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례들도 적지 않다.⁴⁵ 고구려가 한의 문물을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고구려문화의 성격을 바꿀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부분이다.

한문화론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거론할 것은 건국 초기 고구려는 한문화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건국 직후 국가적 성장과 세력 확대에 필수적인 선진문물의 수용과 소화가 고구려로서는 더 없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을 터인데,

⁴² 姜維東, 「高句麗文化淵源概說」, 『社會科學戰線』(2004年 6期), pp. 136-139.

⁴³ 전호태, 「변화여 고구려를 말하라-부록: 고구려 문화와 고분 변화」(사계절, 2004), pp. 219-220.

⁴⁴ 陳鵬·陳琳, 「高句麗文化歸屬於中國東北“漢文化圈”」, 『東北史誌』(2005年 5期).

⁴⁵ 오영찬, 「낙랑군연구」(사계절, 2006), pp. 65-90.

동아시아 선진문물의 중심으로 여겨지던 한과의 교류를 고구려가 외면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문물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탈적 형태로라도 교류를 강제하고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것이 당시나 지금이나 통용되는 교류 방식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강제적이든, 상호적이든 문물의 교류, 혹은 일방적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용자 측의 문화가 곧바로 속성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 여부는 수용자 측의 문화 수용 방식과 관련이 깊다. 외부로부터의 문화수용이 단순한 모방과 차용을 거쳐 속성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선택적 소화와 재창조를 통해 수용자의 문화를 좀더 풍성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 속성에 더 강한 개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후의 문화적 흐름으로 보아 고구려의 경우는 후자에 가깝다.⁴⁶ 고구려는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문화중심의 자리에서 거의 벗어난 적이 없던 중국으로부터 거의 끊임없이 각종 문화와 그 산물들을 받아들이지만 고구려 문화 특유의 개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각종 제제에서 한문화의 속성이 거의 그대로 읽혀진다는 지적 역시 이런 점에서 그 입론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⁴⁷ 논거로 제시되는 제제의 유사성이란 제제별로 비교할 경우, 한-당 고분벽화 이외의 것과 비교하여 찾아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 까닭이다. 벽화의 구성방식, 제제 상호간의 유기적인 관계, 특정한 제제들의 조합이 전체 구성에서 지니는 비중 등등의 요소와 벽화고분의 구조 및 규모, 고분축조 재료 등의 문제도 함께 검토하지 않는 한 벽화유적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거나 논의하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세부 제제의 유사성과 영향관계를 논하려 한다면 필법이나 채색법과 같이 화가나 화파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에서 비교 검토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분석을 시도할 경우, 한-당 고분벽화에서 영향 받은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더욱이 중국의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자들이 제제의 유사성과 관련하여 거론하는 요양 한-위·진시기 고분벽화들은 4세기 후반 이 지역이 고구려의 세력권 안에 들어오거나 직접 지배 영역 안에 포함되면서 그 문화요소들이 고구려문화에 흡수됨을 고려하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⁴⁸ 오히려 새로운 문화요소와 산물들로 말미암아 고구려문

⁴⁶ 전호태, 『고구려고분벽화의 세계』(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p. 173-184.

⁴⁷ 張碧波, 「高句麗壁畫四神圖像與中國的天文學」, 『神話學』(2005).

화가 더 풍부해졌고 그 결과가 고분벽화에 반영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당문화가 중국 바깥세계와의 교류 및 이로 말미암은 문화적 수혈을 통해 더욱더 풍부해지고 개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발현해 나갔던 경험을 고구려도 겪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좀더 객관적인 시각이 아닐까?

중국의 연구자들이 고구려 고분벽화 속에서 발견되는 신화전설 및 종교신앙적 체계들의 기원을 중국의 문헌이나 유적, 문화 활동에서 찾으려는 태도도 학문적 논리성 및 방법론적 측면에서 비판이 가해져야 할 부분이다. 집안의 후기 벽화고분에서 발견되는 해신, 달신과 문명신들을 복희·여와를 주인공으로 한 중국 고대의 창조신화, 문명개화신화를 형상화한 결과라는 해석이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이다.⁴⁹ 이런 주장이 지닌 문제점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와 같은 형상화의 사례를 고구려와 비교하면 더할 나위 없이 풍부한 자료를 자랑하는 중국의 유적, 유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데에 있다(도1-4). 이런 체계들은 고구려인 자신의 풍부한 신화전설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이런 체계들이 등장하기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중국 후한시대 산동화상석에서 三皇五帝를 비롯한 신화전설의 주인공들이 철저히 역사화된 존재로 묘사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⁵⁰

그러나 중국 연구자들의 논리전개 방식이 거칠고 건강부회적이라고 하여 고구려 고분벽화의 주요한 체계들, 화면구성방식, 벽화 주제의 큰 흐름 등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영향, 중국과의 문물교류 흔적 등을 외면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 남북조시대 종교미술에서 연꽃이나 飛天과 같은 불교적 체계가 중요시되고 이의 형상화가 적극 이루어지다가 고구려 고분벽화의 구성에 영향을 준다는 한대 화상석묘와 남북조시대 벽화고분의 주요 체계의 하나로 四神이 선택되다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주요한 체계이자 주제로 받아들여진다는 하는 현상은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문화적 영향관계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은 한-남북조시대 장의미술에 보이는 사신이 고구려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표현되며, 남북조시대의 불교적 체계들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어떤 의미와 비중을 지니며 자리잡는지를 밝혀내는 일일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연꽃으로만 장식된 벽화고분, 사신이 독자적인 공간의 주인공으로

⁴⁸ 전호태, 『고구려고분벽화의 세계』(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p. 58-72.

⁴⁹ 耿鐵華, 「集安五器墳五號墓漢井壁畫新解」, 『北方文物』(1993年3期).

⁵⁰ 全虎兌, 「高句麗 後期 四神系 古墳壁畫에 보이는 仙·佛 混合의 來世觀」, 『蔚山史學』7(울산사학회, 1997), pp.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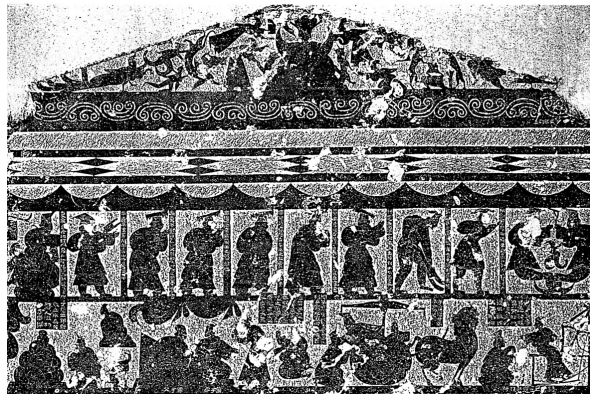
도1 해신과 달신,
오회분4호묘 널방 천장
고임 벽화,
고구려6세기,
중국 길림성 집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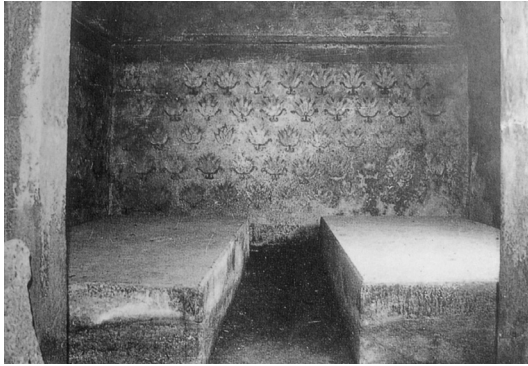
도2 해신과 달신,
신강위구르자차구 투르판
아스타나고분군 출토 벽화,
당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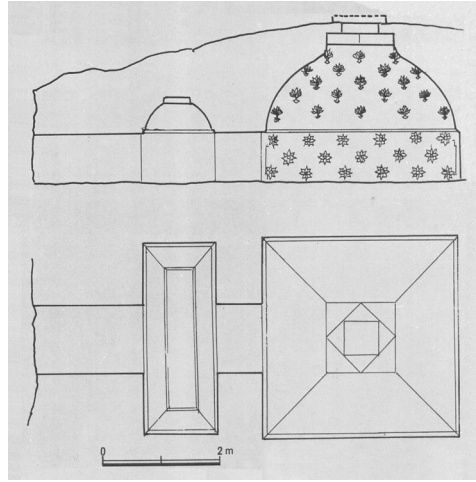
도3 농업의 신과 불의 신, 오회분4호묘 널방 천장고임 벽화,
고구려6세기, 중국 길림성 집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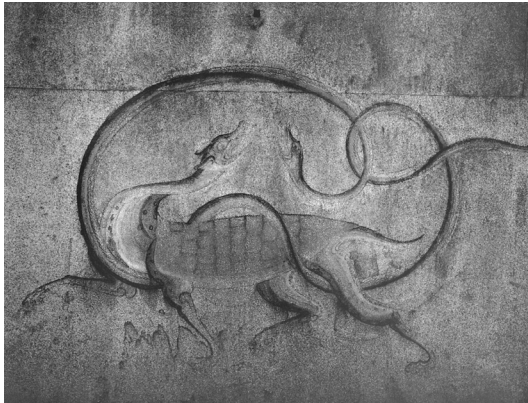
도4 삼황오제, 무량사석실 서벽 회상석 탁본, 후한2세기 후반,
중국 산둥성 가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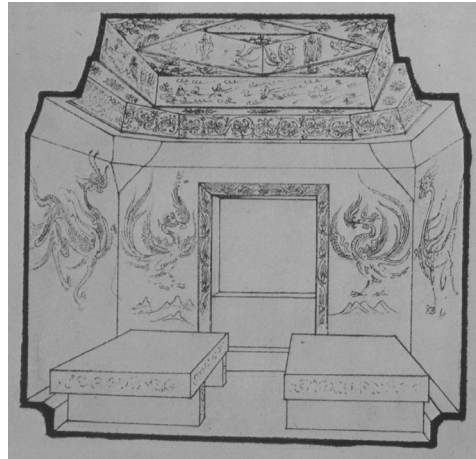
도5 연꽃장식, 미창구장군묘 널방 내부 벽화, 고구려5세기, 중국 요녕성 환인



도6 연꽃장식, 신연화중 무덤칸 벽화 투시도, 고구려5세기, 중국 길림성 집안



도7 현무, 강서대묘 널방 북벽 벽화, 고구려6세기, 북한 남포시 강서구역



도8 사신의 배치, 강서대묘 널방 벽화 투시도, 고구려6세기, 북한 남포시 강서구역

등장하고 우주적 방위신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존재로 묘사되는 후기 사신도벽화고분의 세계가 고구려에서만 확인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성과는 더없이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도5-8).⁵¹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중국 왕조로부터 흘러온 문화적 영향의 흔적을 찾아내는 데에만 관심을 보이던 중국학계의 단순한 연구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 곧



도9 연꽃화생,
삼실총제2실 천장고임
벽화, 고구려5세기,
중국 길림성 집안



도10 천인화생, 신강위구르자차구
코탄 출토 소조상,
기원전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화적 교류과정의 추적에서 시작하여 그 역동적 결과와 의미까지 찾아내는 식의 연구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불교와 도교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졌으며, 천문학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성과 역시 가감 없이 반영되어, 거꾸로 벽화를 통해 중국 과학기술의 수준을 읽어낼 수 있다는 식의 해석도 앞으로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⁵² 고분벽화 속 천문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정리에 따르면 중국과는 구별되는 고구려 고유의 천문인식체계와 표현방식이 고분벽화에서 읽혀지는 까닭이다.⁵³ 비록 중국 천문학으로부터의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고구려식 문화 수용과 소화, 재창조라는 문화 속성이 천문분야에도 적용되었

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신선신앙과 도교, 불교의 경우에도 중국의 왕조들이 단순히 중계자의 역할을 맡은 것일 수도 있고, 그 기원이 중국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분벽화의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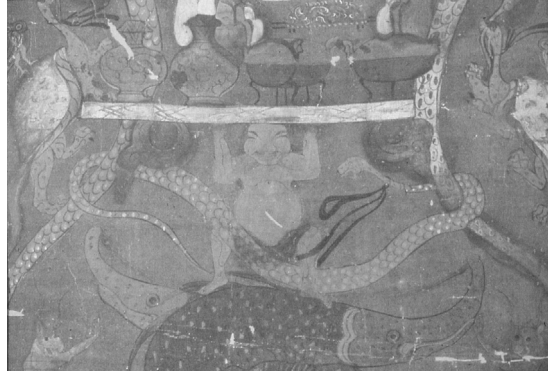
⁵¹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사계절, 2000), pp. 331-349.

⁵² 張碧波, 「高句麗壁畫四神圖像與中國的天文學」, 『神話學』(2005).

⁵³ 金一權, 「고구려고분벽화의 天文觀象체계 연구」, 『震植學報』 82(진단학회, 1996); 金一權, 「四神圖 형식의 성립 과정과 漢代의 天文星宿圖 고찰 - 고구려 벽화의 천문세계관 이해와 관련하여 -」, 『高句麗研究』 11(고구려연구회, 2001), pp. 109-156.



도 11 우주역사 삼칠층 제실 서남벽 벽화, 고구려 5세기, 중국 길림성 집안



도 12 역사, 장사 미왕퇴 1호묘 출토 벽화, 전한기원전 2세기, 중국 호남성 장사 호남성박물관

제재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영향의 산물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이다. 예를 들어 불교적 제재들 가운데 연꽃은 동아시아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종교적 의미를 담은 미술 제재의 하나로 사용되었지만, 연꽃에서 天人이 화생한다는 관념의 표현은 인도에서 비롯되어 중앙아시아, 북중국을 거쳐 고구려로 전해진 종교문화 요소이다(도 9, 10).⁵⁴ 벽화 제재로서 연꽃화생의 전파과정에서 중국 왕조들은 중계자 이상의 역할을 맡지 못했던 것이다. 필자가 밝혔듯이 불교문화의 전파과정에서 고구려에 전해진 우주역사라는 제재는 표현 양식 전반에서 북중국이라는 대개를 거치지 않았음이 확실하다(도 11, 12).⁵⁵ 고분벽화에서 신선신앙과 관련된 주요 제재들 가운데 일부는 불교적 제재들과 뒤섞여 표현되는데, 이는 4-6세기 동아시아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선·불 혼합적 흐름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고구려인의 종교 관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오히려 유사한 양식의 형상화 사례를 같은 시기 중국의 종교미술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근래 중국 연구자들의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는 한족중심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바탕을 둔 변강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2000년 전후 적지 않은 논저의 발표로 이어졌지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연구 대상이 된 유적과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인식방향과 연구방법론에서 학문적 객관성과 설득

⁵⁴ 全虎兌, 「고구려고분벽화에 나타난 하늘 연꽃」, 『美術資料』 46(국립중앙박물관, 1990), pp. 1-68.

⁵⁵ 全虎兌, 「高句麗 後期 四神系 古墳壁畫에 보이는 仙·佛 混合的 來世觀」, 『蔚山史學』 7(울산사학회, 1997), pp. 1-48.



도13 삼죽오조형물기단, 현대,
중국 길림성 집안 시청광장

력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했던 까닭이다. 그간 사회주의 국가의 학자들이 흔히 보여주었던 오류, 곧 정치적 목적과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인식론, 논리체계를 바탕으로 가상의 역사상, 문화상을 그린 뒤 이를 역사적 사실로 설명하려 했기 때문이다. 사실을 찾고 읽어 내기 위해 유적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상상하고 새로 그려내고자 유적 주위를 맴돌았던 것이다. 유적이 담고 있는 역사문화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살펴보기보다는 이미 전제하고 있는 해석과 사실들이 유적에 적혀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려고만 했던 것이다. 결국 중국의 연구자들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고자 한 것만 보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논저로 정리해냈으며, 좀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려 한 중국 내의 다른 연구자들과 중국 바깥 세계의 다수 연구자들에게 이런 논저들의 대부분은 특정 유적과 그 역사에 대한 정치적 연구의 결과물로 인식되고 평가받게 된 것이다.

우려가 되는 것은 학문세계에서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연구자들의 고구려문화 및 고분벽화 연구성과는 중국의 동북3성지역에서 지역문화 상징물 조형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⁵⁶ 길림성 집안시 시청광장의 조형물에서 잘 드러나듯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주요 계층들은 고구려사가 동북지역 한문화권의 형성과 확산의 역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도 13-15). 중국 지방 행정단위의 책임자에게 중국 고구려사를 확인시켜주는 역사 유적으로 고구려 고분벽화만큼 좋은 자료

⁵⁶ 이와 관련하여 동북공정의 추진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졌으며, 중국의 연구기획이 기존의 ‘학술논쟁’보다는 ‘관광자원화·생활화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관심의 방향을 틀었음을 지적인 윤희탁의 최근 논고가 주목된다. [윤희탁, 「포스트(Post) 동북공정: 중국 東北邊疆戰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사학회』 197(역사학회, 2008), pp. 99-129.]



도14·15 고구려사 형상화
가동, 현대,
중국 길림성 집안
시청광장

는 없는 것이다. 중국 고구려사를 줄거리로 하는 연극에서도 고분벽화는 매우 적합한 미술 자료이다. 중국 연구자들의 관련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상징물과 대중 홍보용 예술작품들이 중국인뿐 아니라 외국관광객들에게도 의미 있는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⁵⁷ 이는 중국학자들의 고구려 연구가 담고 있는 정치적 지향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주요국가들 사이의 역사인식과 서술이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조차 없애가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동아시아 역사 연구자들 사이의 공동연구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도 절실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V. 맺음말

다민족국가인 중국은 중화민국 성립 단계부터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국가정체성을 규

⁵⁷ 길림성 집안시의 경우, '고구려 문화관광도시 진흥전략'을 마련한 뒤 이의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고광의, 『중국 집안시 고구려 문화관광도시 건설 진행 상황 및 그 의미』, 『동북아역사문제-주요현안분석』 통권1 호(동북아역사재단 2007. 4) 참조.

명하는 이론적 바탕으로 삼고 이를 정교하게 다듬는 데 주력하여 왔다. 함께 진행된 변강 연구도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신중국 정권이 티베트 침공을 강행하면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정치·사회·교육 제 분야에서 전면에 내세워졌고, 역사교과서에도 적극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민족간, 지역간 평등과 공존을 담보해주어야 할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한족중심’이라는 전제가 붙고 이것이 애국주의, 통일주의와 접합되면서 중국 내 소수민족의 자치주의는 크게 억압되었으며 변강 연구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⁵⁸

1976년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정치적·문화적 충격에 대비하고 다양한 사유방식의 유입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변강 연구는 재개되었고,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기반과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도 본격화하였다. 중국 동북지역 역사문화도 한족중심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한 변강 연구의 주요 대상이자 과제였다. 고구려는 동북지역 연구에서도 가장 주요한 연구주제였으며, 고분벽화는 고구려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유적으로 여겨졌다.

중국의 연구자들은 대학의 세계사 교재에서 고구려사를 한국고대사에서 분리해내고 한국고대사의 영역을 한반도 중남부로 제한해버리는 역사인식과 서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구려사를 漢化된 고구려인의 역사, 동북지역 한문화권 확산과 전파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설명하려 한다. 이런 시각을 지닌 연구자들에게 고분벽화는 고구려가 한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하고 발전한 나라였음을 확인하게 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물질적 증거일 뿐이다. 2000년 전후 쏟아져 나오는 중국학계의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논저는 한문화의 속성을 그대로 지닌 문화적 증거물로서의 고분벽화에 관한 것들이다.

비록 논리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연구시각과 허술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준비된 논저들이지만 중국 연구자들의 관련 연구성과는 동북3성지역의 지방 행정단위 상징물 조성사업, 관광홍보용 예술 활동 등에 활용되면서 적지 않은 대중교육 효과를 누리고 있다. 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서술의 공유 부분 확대, 이를 위한 공동 연구 기반 조성과 공동 연구의 시행이

⁵⁸ 1976년까지 10년 동안 맹위를 떨쳤던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종파주의, 주자주의, 분열주의 등의 굴레를 쓴 다수의 소수민족 지도자와 학자들이 숙청되었고, 본토를 전제로 하는 변강이라는 용어도 금기시되고 관련 연구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국가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화대혁명’은 중국공산당이 내전 승리 이전까지 유지하던 연방계론에서 자치주의로, 다시 중화민족 단일국가론으로 옮겨가면서 이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관철해 나가기 위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박장배는 신중국 50년의 역사인식 변화과정을 ‘중화민족’ 논리가 ‘사회주의’ 논리를 압도해가는 과정으로 규정하였다. [박장배, 「현대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연구사업의 등장배경」, 『역사외현실』 55 (한국역사연구회, 2005), pp. 146-147]

필요하다고 보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중국학계는 중국 지도부와의 보이지 않는 교감을 바탕으로 고고학계는 유물, 유적 연구를 통한 신화전설시대의 역사화를, 미술사학계는 고고학적 발굴결과 제기되는 중국 다문화기원설을 중원문화론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유물·유적 해석을, 역사학계는 이런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한족중심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시공간적 적용대상을 확대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연구자들은 중국 변강문화가 중원문화의 영향권 아래 편입되는 과정을 역사적 시공간 속에서 찾아내거나 상정하여 그려내는 작업에 몰두할 것이고, 동북지역 연구의 경우 그 좋은 대상이자 사례로 고구려 고분벽화를 들 가능성이 높다.

더 우려되는 것은 위와 같은 시각과 태도를 바탕으로 생성된 연구성과물들이 중국 내외를 잇는 중국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고 공유됨으로 말미암아 형성될 왜곡된 동아시아 인식체계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정교한 인적 네트워크로 말미암아 중국에서 이루어진 제반 연구 성과의 전파, 확산 속도가 한국이나 여타 동아시아 국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넓고 빠르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왜곡된 역사인식의 전파 및 공유로 인한 폐해의 정도는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한문화의 산물로서의 고구려 고분벽화’라는 인식을 담은 서술이 중국 바깥 세계 연구자들의 2차 저술에 반영되어 재확산이 이루어진다면 ‘고대 동북아시아 문화의 독자성을 잘 보여주는 증거물로서의 고구려 고분벽화’라는 인식이 설 자리는 없어지는 까닭이다. 한국학계가 고구려사, 고구려 문화,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를 좀더 폭 넓은 시각에서, 학제적 차원, 국제적 공동연구의 차원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런 우려가 조만간 현실이 되어 양식 있는 연구자들의 눈앞에 커다란 장애물로 우뚝 서 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주제어(key words) — 동북공정 (Research Project of Northeast China), 통일적 다민족국가론(Unified Multinational State Concept), 고구려(Goguryeo), 고분벽화(Tomb Mural), 한문화(Chinese Han Culture), 중국귀속론(Theory of Reversion to China)

▣ 투고일 2008년 3월 4일 | 심사일 2008년 4월 8일 | 심사완료일 2008년 5월 9일▣

다민족국가인 중국은 중화민국 성립 단계부터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국가정체성을 규명하는 이론적 바탕으로 삼고 이를 정교하게 다듬는 데 주력하여 왔다. 함께 진행된 변강 연구도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신중국 정권이 티베트 침공을 강행하면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정치·사회·교육 제 방면에서 전면에서 내세워졌고, 역사교과서에도 적극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민족간, 지역간 평등과 공존을 담보해주어야 할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한족중심이라는 전제가 붙고 이것이 애국주의, 통일주의와 접합되면서 중국 내 소수민족의 자치주의는 크게 억압되었다. 1986년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정치적·문화적 충격에 대비하고 다양한 사유방식의 유입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변강 연구는 재개되었고,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기반과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도 본격화하였다. 중국 동북지역 역사문화도 한족중심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한 변강 연구의 주요 대상이자 과제였다. 고구려사는 동북지역 연구에서도 가장 주요한 연구주제였으며, 고분벽화는 고구려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유적으로 여겨졌다.

중국의 연구자들은 대학의 세계사 교재에서 고구려사를 한국고대사에서 분리해내고 한국고대사의 영역을 한반도 중남부로 제한해버리는 역사인식과 서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구려사를 漢化된 고구려인의 역사, 동북지역 한문화권 확산과 전파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설명하려 한다. 이런 시각을 지닌 연구자들에게 고분벽화는 고구려가 한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하고 발전한 나라였음을 확인하게 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물질적 증거일 뿐이다. 2000년 전후 쏟아져 나오는 중국학계의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는저는 한문화의 속성을 그대로 지닌 문화적 증거물로서의 고분벽화에 관한 것들이다. 앞으로도 중국의 연구자들은 중국 변강문화가 증원문화의 영향권 아래 편입되는 과정을 역사적 시공간 속에서 찾아내거나 상정하여 그려내는 작업에 몰두할 것이고, 동북지역 연구의 경우 그 좋은 대상이자 사례로 고구려 고분벽화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논리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연구시각과 허술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준비된 논저들이지만 중국 연구자들의 관련 연구 성과는 동북3성 지역의 지방 행정단위 상징물 조성사업, 관광홍보용 예술 활동 등에 활용되면서 적지 않은 대중교육 효과를 누리고 있다. 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서술의 공유 부분 확대, 이를 위한 공동 연구 기반 조성과 공동 연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대량 생성된 연구성과
물들이 중국 내외를 잇는 중국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고 공유되면서 왜곡된 동아시아 역사인
식체계가 확산되고 재생산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한국학계가 고구려사, 고구려문화,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를 좀더 폭넓은 시각에서, 학제적 차원, 국제적 공동 연구의 차원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 마련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Abstract

Chinese Historian View of Ancient Korean History and Study of Goguryeo Murals

Jeon Hota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 multi-ethnic nation, established unificative multi-ethnic nation theory as means of defining its national identity since the foundation of Republic of China in 1911 and endeavored to elaborate this theory. Borderland research, which was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was also one of the efforts to supplement unificative multi-ethnic nation theory. After winning the Chinese Civil War, the govern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invaded Tibet, further enforcing unificative multi-ethnic nation theory in politics, society, education, and began to include the theory in history textbooks.

As unificative multi-ethnic nation theory, which should have secured ethnic, regional equality, became centered around Han ethnic people and combined with nationalism, the independence of minor ethnic groups in China was strongly oppressed. In 1976, as China chose to reform and open, borderland research was resumed as a preparation for political and cultural shock from outside contact. The full-fledged fundamental research also began to strengthen the basis and goals of unificative multi-ethnic nation theory. The history and culture of northeast China was the main object of borderland research based on unificative multi-ethnic nation theory. The history of Goguryeo was the most important research theme among the northeastern region research, and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 Culture, University of Ulsan

murals were considered the crucial evidence defining historical identity of Goguryeo.

The Chinese researchers have separated history of Goguryeo from ancient Korean history and limited ancient Korean territory to central and southern Korea. Furthermore, Chinese researchers see history of Goguryeo as a history of Sinicized people and an extension of Chinese Han culture. For researchers with such point of view, murals are the best material evidence supporting their idea that Goguryeo's foundation and development relied solely on Han culture. The post-2000 study of Goguryeo murals by Chinese scholars are all about Goguryeo murals as a cultural evidence for direct influence of Chinese culture. Chinese scholars would continue to focus on describing the process of borderland culture's assimilation to Chinese culture, and it is likely that those scholars would choose Goguryeo tomb murals as a good example of assimilation process in northeastern China.

Despite their fallacious point of view and illogical reasoning, the Chinese scholars' recent studies are becoming public and more widespread as they are applied in local trademark creation projects and used in tour advertisements and in arts. Such a trend is considered inappropriate when each country's cooperation is necessary to refine East Asian historical views. Also, some pre-measures should be taken as a preparation for spreading history distortion through Chinese network. This is the moment for Korean scholars to try seeing Goguryeo tomb mural research from long term point of view and to be more active in establishing network between international scholars.